



미 증시, 미국 CPI 발표 앞두고 혼조 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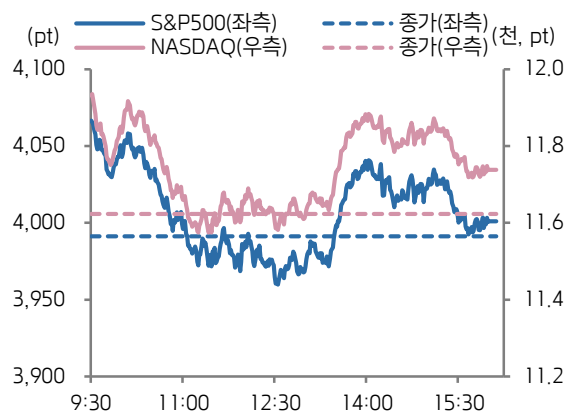
미국 증시 리뷰

10 일 (화) 미국 증시는 최근 급락세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오전 2%에 가까운 반등세를 보였지만, 미국 소비자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혼조 마감. 애플(+1.6%), 테슬라(+1.6%) 등 대형 기술주, 반도체주들은 견조한 반등 흐름을 보이며 나스닥은 1% 상승했지만, 기타 업종들은 차별화 장세를 보이며 다우와 S&P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. 미국 국채 3 년물 금리는 9bp 추가 하락하면서 3.0% 하회(2.99%)하는 등 채권 매수세는 지속되었지만, VIX 지수(33.0pt)는 5% 하락하며 변동성 일부 완화. S&P500 주요 지지선 4,000pt 를 회복(다우 -0.26%, S&P500 +0.25%, 나스닥 +0.98%, 러셀 2000 -0.02%).

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것이 자신의 중요한 임무이며 연준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. 이날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은 대부분 매파적이었음.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“6, 7 월에 50bp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한다”, 매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“다음 2 개 회의에서 50bp 인상은 아주 타당하다”, 월러 이사는 “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지금 금리를 인상할 때”라고 언급. 한편 엘런 미 재무장관은 의회 청문회 증언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올해 안에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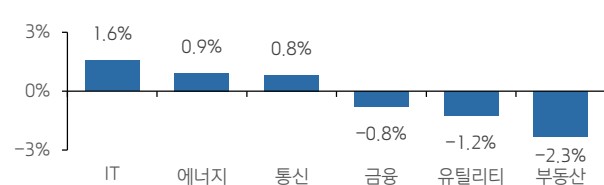
업종별로 IT(+1.6%), 에너지(+0.9%), 통신(+0.8%) 등이 상승한 반면, 부동산(-2.3%), 유틸리티(-1.2%), 금융(-0.8%) 등이 하락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.5% 반등, 다우 운송 지수는 0.1% 하락 마감. 한편 다우 항공 섹터 지수는 1.4% 하락. 종목별로 실적을 발표한 펠로튼(-8.7%)는 실적 및 가이드언스가 부진하면서 하락. 화이자(+1.8%)는 바이오헤브 파마(+68.4%)를 116 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발표하며 상승. 어닝 쇼크를 기록한 노바백스(+1.1%)는 백신 판매 효과로 다음 분기 양호한 가이드언스를 제시하면서 상승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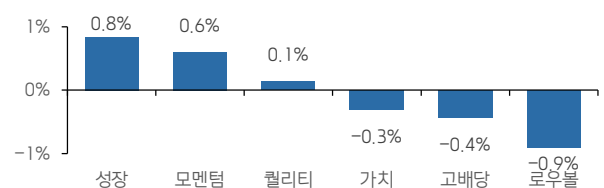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4,001.05	+0.25%	USD/KRW	1,276.05	+0.15%
NASDAQ	11,737.67	+0.98%	달러 지수	103.93	+0.27%
다우	32,160.74	-0.26%	EUR/USD	1.05	+0.02%
VIX	32.99	-5.06%	USD/CNH	6.75	-0.02%
러셀 2000	1,761.79	-0.02%	USD/JPY	130.44	-0.01%
필라. 반도체	2,900.13	+2.51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14,462.28	-0.06%	국고채 3년	3.055	-1.7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3.410	-1bp
Eurostoxx50	3,554.80	+0.79%	미국 국채 2년	2.612	+1.9bp
MSCI 전세계 지수	623.77	-3.09%	미국 국채 10년	2.991	-4.3bp
MSCI DM 지수	2,671.83	-3.27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1,014.68	-1.63%	WTI	99.76	-3.23%
MSCI 한국 ETF	64.30	+0.45%	금	1841	-0.95%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					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+0.45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+0.48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34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276.9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보험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주요 체크 사항

1. 5월 이후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저점 매수세 유입 가능성
2. 중국의 4월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 지표 결과
3. 장 마감 후 발표 예정인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를 둘러싼 장중 관망심리 확산 가능성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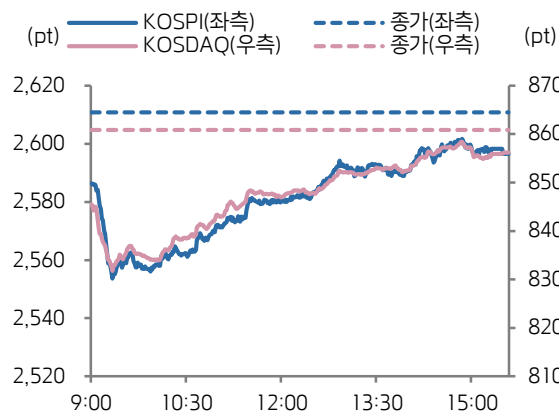
지난 밤에도 주요 연준 인사들은 50bp 인상만으로 적절하며 그 과정에서 과거 80년대 폴 볼커 의장 재임시절에 겪었던 침체가 재연될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연준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완화시키면서 사태 진화에 나서려는 모습. 10일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중국산 제품 수입관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인플레이션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상황.

그러나 전 거래일 미국 증시의 장중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되는 흐름을 내내 이어갔다는 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, 현재 시장에서는 바이든이나 연준의 말보다는 실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확인해 나가면서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판단. 또 과거 '15~'18년 인상 사이클 때와 달리 인플레이션 레벨 자체도 높고 공급 사이드의 물가 압력도 발생한 상황이므로, 연준 과거보다 한층 더 후행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. 10일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"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을 시 75bp 인상을 배제하지 않는다"고 강조했던 것도 같은 맥락.

결국 인플레이션이 언제 피크아웃 할지, 피크아웃 이후 레벨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가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와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. 일단 금일 밤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(예상 8.1%YoY)는 전월(8.5%)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. 그러나 시장참여자들 사이에서 피크아웃 기대감이 형성되는지 관건이며, 이와 관련해 해당 지표 발표 이후 주식시장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 변화에 주목해볼 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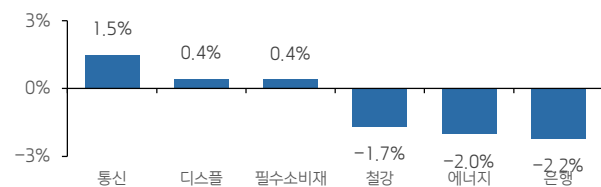
금일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의 폭락세 진정 속 최근 주가 급락에 따른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. 다만,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의 4월 생산자물가(7.8%YoY, 예상 8.3%)와 장 마감 후 미국의 4월 물가 결과를 둘러싼 관망심리는 짙을 것으로 판단. 이를 감안 시 전반적인 증시의 반등 탄력은 제한적인 채 개별 실적 이슈에 따른 업종 및 종목간 차별화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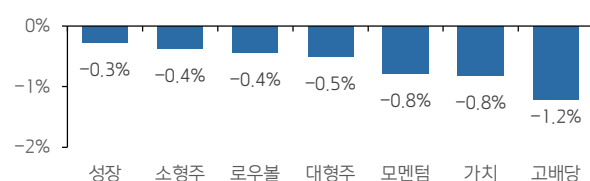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iwise, Fnguide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